

자기소개서

엔림펜잔안토니오

지원동기 및 포부

[직관적이고 쉬운 사용자 경험을 만드는 개발자]

개발자로서 저는 복잡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에 가장 큰 보람을 느껴왔습니다. 콜라보그라운드 는 뷰티샵 디자이너들의 일정 관리부터 매출 분석까지의 복잡한 운영 과정을 직관적인 모바일 경험으로 혁신하며 빠른 반복 개발과 사용자 피드백을 통해 실제 현장의 니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기술로 사용자들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가는 콜라보그라운드의 모습을 보며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로서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도전을 해왔습니다. Desoft 에서 쿠바의 대표적인 뉴스 웹사이트를 모바일 앱으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기존 웹사이트는 사용자들이 관심 있는 주제의 뉴스를 자유롭게 찾아보거나 구독하는 것이 어려웠고 맞춤형 뉴스 소비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웹사이트 사용 패턴과 사용자 피드백을 분석한 결과, 특정 주제의 콘텐츠를 찾는 데 평균 2 분 이상이 소요되었고 사용자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주제를 한눈에 탐색하고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설계했습니다. 주제별 게시물 수를 표시하고 선택된 주제가 즉시 상단으로 이동하는 직관적인 UI 를 구현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선택한 주제들의 뉴스만 모아볼 수 있는 맞춤형 피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 결과 웹사이트 대비 콘텐츠 평균 검색 시간이 30 초로 약 75% 단축되었고, 개인화된 뉴스 소비 경험을 통해 플랫폼의 사용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후 한국에서의 머신러닝 연구를 통해 고도화된 데이터 처리와 시스템 최적화 경험을 쌓았으며, 이를 통해 대규모 서비스의 안정성과 성능을 높이는 역량을 키웠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안드로이드 플랫폼과 Kotlin/Java 에 대한 전문성, UI/UX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와 REST API 연동 경험을 활용하여 콜라보살롱 앱 개발에 참여하고 더욱 직관적이고 확장 가능한 서비스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특히 최신 안드로이드 기술을 활용한 기능 개발과 리팩토링, 체계적인 코드 관리, 성능 최적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구현을 통해 더욱 쉽고 매끄러운 사용자 경험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개발자]

ETECSA 통신사에서 전화번호부 모바일 앱 개발을 담당하여 검색과 오프라인 서비스를 구현하는 과제를 맡았는데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던 중 서버와의 데이터 동기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동기화 성공률이 65%에 그쳤고, 한번 동기화가 중단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테스터들의 불만이 커져갔습니다. 특히 불안정한 네트워크 환경과 높은 데이터 비용이 발생하는 쿠바 상황 속에서 많은 사용자가 데이터 요금이 부담되어 동기화 자체를 꺼리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대로는 사용자들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즉시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먼저 네트워크 로그와 사용자 패턴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대용량 데이터를 한 번에 전송하려는 시도가 불안정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실패의 주요 원인임을 발견했습니다. 더 나아가 실제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통해 데이터 전송 실패 시 진행 상황의 초기화가 가장 큰 불만 사항이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면적인 개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큰 데이터를 500KB 단위로 분할하여 전송하는 청크 기반 시스템을 구축했고, SQLite 를 활용해 각 청크의 전송 상태를 저장하여 실패 시에도 진행 상황이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WorkManager 를 도입해 네트워크 상태가 좋아졌을 때 자동으로 재시도하는 로직을 구현했습니다.

이러한 개선으로 업데이트 완료율이 98%까지 향상되었고, 데이터 소비량 절감과 오프라인 사용 지원을 통해 사용자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면밀한 원인 분석과 체계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콜라보그라운드에서도 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빠르게 해결책을 찾아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모바일 앱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성격의 장단점

[문제 해결을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

저의 가장 큰 장점은 어려움 앞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학습하는 자세입니다. Desoft 에서 근무하던 시절, 가스 사용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분석하는 앱의 설계와 개발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코틀린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당시 자바로만 개발하던 저에게는 코틀린의 새로운 개발 방식이 낯설었고, 특히 비동기 처리와 UI 상태 관리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답답함을 느꼈고 스스로 두 세 배 공부해서 코틀린을 완벽하게 익히기로 결심했습니다.

퇴근 후와 주말의 시간을 활용해 코틀린과 Jetpack 을 꾸준히 학습했습니다. 안드로이드 공식 문서와 코틀린 레퍼런스 중심으로 학습하고 관련 서적들을 읽고 GitHub 의 실제 프로젝트들을 분석했습니다. 이론적인 학습에서 나아가 실전 경험을 쌓기 위해 개인적으로 개발했던 자바 기반의 앱을 코틀린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매일 2-3 가지의 코틀린 기능을 실제로 코드에 적용해 보며 실전 경험을 쌓았고, 코틀린으로 비동기 처리를 개선하고 ViewModel 과 LiveData 등을 활용한 MVVM 패턴을 구현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역량을 가졌더라도 개인의 성장만으로는 조직의 전반적인 발전을 이끌어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팀 전체의 성장이 더 나은 개발 문화로 이어진다는 믿음으로 매주 코드 리뷰 시간을 활용해 동료들과 코틀린 개발 노하우와 베스트 프랙티스를 적극적으로 공유했습니다. 코루틴의 실제 활용 사례와 MVVM 패턴 적용 방법, Jetpack 컴포넌트 사용 팁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쌓여서 눈에 보이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앱 개발 측면에서는 코드의 가독성과 유지보수성이 크게 향상되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가스 관리 앱을 완성할 수 있었고, 데이터 수집과 분석 과정의 자동화로 전체 업무 처리 시간을 70% 이상 단축했습니다. 또한 팀 전체의 개발 역량 향상으로 새로운 기능 개발 시 발생하는 버그가 30% 가량 감소하는 성과도 달성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학습하는 것이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드는 밑바탕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콜라보그라운드에서도 멈추지 않는 자기 성장과 새로운 도전을 통해 더욱 직관적이고 원활한 사용자 경험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간결한 소통을 향한 노력]

저의 단점은 발표나 회의에서 시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석사 과정 중 진행했던 연구실 논문 발표에서 이 문제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개발한 알고리즘의 구현 방식과 성능 개선 과정을 너무 상세히 설명하려다 보니, 30 분으로 예정되었던 발표가 1 시간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표 전에 시간을 재며 리허설을 하고, 각 섹션별로 구체적인 시간 계획을 세우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또한 연구실 동료들에게 발표 피드백을 요청하여 불필요한 세부 내용은 과감히 줄이고 핵심 메시지를 강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었고 최근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